

호르무즈 봉쇄되나... 유화·항공 등 원유수급 예의주시

美-이란, 갈등 고조

국내 산업계 '악영향 확산' 우려에
정유업계 "가격상승 가능성 있어"
항공사 "엇친데 덮쳐... 부담 가중"
석화업계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면전으로 치달자 국내 산업계에는 그에 따른 악영향이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미국은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서 이란 군부 실세 거센 솔레이마니 쿠드스군(이란 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공습 살해했다. 솔레이마니가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하자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알리 하메네이도 이란 최고지도자 등은 미국을 상대로 한 군사적 대응을 예고했고 8일 실제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들을 공격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원유 공급량 감소·수송로 봉쇄 등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이란은 미국과의 갈등이 격해질 때마다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접해 있는 원유 수송로로서 해협이 봉쇄되면 전세계 원유 공급량의 30%가량이 영향을 받게 된다.



8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주둔 미군기지 여러 곳을 향해 탄도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다.

/연합뉴스

또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원유의 공급이 줄어들 유가가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등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7일 기준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9% (0.57달러) 하락한 62.70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브렌트유는 8일 기준 전날보다 배럴당 1.04% (0.72달러) 하락한 68.19달러에 거래됐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공습 이후 4거래일 만에 하락한 것으로, 지난 6일 WTI는 배럴당 63.72달러로 5월 1일 이후 8개월만에 최고가를 기록했고 브렌트유도 4개월만에 처음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섰다.

이란이 보복에 나서며 상황이 악화되자 정유·석유화학·항공 등 원유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원유를 수입하는 대표적

인 산업인 정유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단기적으로는 유가 상승에 따라 기존 재고의 가치가 높아져 정제마진이 외려 개선될 수 있지만 사태가 장기전에 돌입할 경우 국제유가가 회복됐을 때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는 이유는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시장에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유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유가가 오른 상황은 아니다. 지금 유가가 오르면 사실 시차 효과에 의해서 정유사들이 과거에 원유가 오르기 전 갖고 있던 재고분에 대해 채고 관련 이익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수요공급에 의해서 오르게 아니기 때문에 원유가 올랐다고 해도 실제 정유사들이 생산해내는 제품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원유는 올랐는데 제품(가격)은 안 오른다고 하면 마진 측면에서 현재보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심리적인 부분과 국제 정세 등에 의해서 원유가가 올랐고, 이벤트가 더 발생해서 원유 공급 문제가 생겨 더 오르게 된다고 하면 제품 또한 공급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지켜봐야 한다. 현재는 그런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밖에 말할 게 없다.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될 지 지금 예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불황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은 '엇친 데 덮친 격'이라며 "터질 게 다 터졌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는 여러 부분의 영업비용에 있어서 '연료유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해 3분기(누적 기준) 전체 영업비용 9조5044억 3889만원 가운데 유류비가 2조3697억 2406만4000원 약 24.9%로 1순위다. 여객 수요 증가율 둔화 등에 따른 수익도 부진한 상황에서 영업비용마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영업비용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꽤 있다. 그래서 (유가의) 추이를 보고 있는 중이다.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사태가 지속되면 영향이 있을 것이다"며 "운임 같은 경우, 여러 요인을 고려해 산정되는데 아마 유류할증료가 올라가서

고객 입장에서 느끼는 운임도 상승을 체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항공유 매입기준은 보통 전달 평균이라 영향이 있을 것이다. 관세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진짜 항공업계가 안 좋은 상황이다. 유가까지도 오르고 있으니 터질 게 다 터졌다"고 말했다.

반면 아직까지 석유화학업계는 미국-이란 사태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석화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사들은 원유를 직접 수입하지 않고 원유를 정제해서 추출하는 납사를 정유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이란산 원유 제재와 관련해 석유화학사가 받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며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고조될 시, 원유수급 차질 등으로 인해 납사 가격 등락에 일시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타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이미 지속적으로 고조돼 온 미국-이란 간의 갈등으로 인해 납사 수입국들도 대부분 카타르산이나 두바이 유 등에서 추출되는 납사로 구입처를 이미 다각화 해왔기에 수급 유지 및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석유화학제품은 원유를 정제해 이를 바탕으로 생산하는 만큼 유가 급등에 따른 제품 가격의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환경부장관 초청 중소기업 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중소기업계, 환경부장관 만나 규제애로 호소

"화평·화관·대기법 등에 경영 부담"

중소기업계가 환경부 장관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기업 활동을 옥죄는 환경규제에 대한 애로 해결을 호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로 초청,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였던 환경·노동 문제 가운데 노동 분야는 최저임금 동결, 주52시간제 1년간 계도기간 부여 등으로 일부 해결됐지만 환경 분야는 미해결 과제가 다수"라면서 "화관법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 개선, 가동개시 신고제도 도입 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특히 화관법은 취급시설 기준 준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중소기업들의 규제 이행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강화된 대기법 시행으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30% 이상 강화돼 이 역시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들은 화평법 때문에 화학물질 다품종 소량 판매기업의 경우 회사당 수백 종의 등록이 필요해 사업 영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등록만료 시기인 2021년 이 다가올 수록 기업들의 공장 해외이전,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정부 기준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생산 확대(매년 100개→매년 2500개) ▲소기업(제조업) 대상 화학물질 등록 전 비용 지원 ▲국외시험자료 현황정보 및 구입소통채널 구축 공인시험기관 육성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 0.1톤→1톤 상향 등을 건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경영자가 주목하는 기업인 1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日 닛케이산업신문 설문조사
2위 현대 정의선, 3위 SK 최태원 順

한국 경영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기업인은 국내 재계 순위와 같았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닛케이산업신문은 최근 각국 경영자들이 주목하는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위를 차지했다. 3년 연속이다. 이어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계 순위대로 순위를 받았다.

중국에서는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CEO가 1위였다. 현지 기업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을 겪으면서도 선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부터)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부 신년합동인사회 전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구광모 LG그룹 회장.

/연합뉴스

알리바바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 마윈이 2위였다.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그룹 손 마

사요시(한국명 손정의) 회장과 토요타 자동차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공동 1위였다.

/김재용 기자 juk@

롯데, 협력사 납품대금 8200억 조기지급



33개 계열사 참여, 파트너사 1.9만 곳

롯데는 설명절을 맞아 파트너사들의 자금 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납품대금 약 8200억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중소파트너사들이 명

절에는 급여 및 상여금 등 일시적으로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앞당겨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롯데백화점, 롯데정보통신, 롯데글로벌로지스, 롯데칠성음료 등 33개사가 대금 조기 지급에 참여하며, 약 1만 9000개의 중소파트너사가 혜택을 보게 된다.

롯데는 연휴 3일 전인 1월 21일까지 모든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평

상시 대비 평균 약 13일을 앞당겨서 지급하는 것이다.

한편 롯데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에 기반해 롯데그룹사 동반성장을 평가하는 등파트너사와의 공감(共感)·공생(共生)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롯데는 동반성장펀드를 9640억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동반성장펀드는 롯데 출연금의 이자를 활용해 파트너사 대출 이자를 자동 감면해주는 것으로 롯데와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

/박민용 기자 parkiu7854@